

## 제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The 8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올해 8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막식이 11월 17일 건축사회관(서초동 소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건축과 영화의 문화적 만남을 통해 건축을 창조하는 작가 '건축사'가 일반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며, 인간 삶의 의미 그리고 건축의 사회·미학적 가치, 문화적 성취를 조명하고자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우수한 건축영화를 발굴·소개하고 있다.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김혜나씨와 대한건축사협회 이남식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석자들의 교류의 장이 된 리셉션을 시작으로 류춘수 조직위원장이 개막선언을 하자 본격적인 영화제의 막이 올랐다.

이번 영화제는 “건축\_걷다”라는 주제로 11월 22일까지 6일간 진행됐다. 르 코르뷔지에, 프라이 오토, 에로 사리넨 등 세계적인 건축사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마스터 앤 마스터피스’를 비롯해, 시대상의 집적체로서의 건축물과 공간을 조명하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건축 유산의 재발견’, 무분별한 도시화에 일침을 가하고 진정한 도시의 발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어번스케이프’와 건축 영화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예술과 예술가들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비온드’,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 맺는 건축물인 ‘집’의 의미를 조명하는 ‘집, 우리가 사는 곳’ 등 총 5개 섹션에서 11개국 22편의 상영작이 소개됐다. 이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역대 최대 규모의 상영작이며 더구나 그 중 13편은 아시안 프리미어, 4편은 한국 프리미어라는 점 또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개막식 이후에는 이화여대 ECC 내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영화가 상영됐으며 부대행사로 국내 건축문화를 이끌어가는 건축사들을 초청해 시의적인 주제에 대해 일반 관객들과 함께 토론하는 장인 HAF(Host Architect Forum)와 건축 및 문화계 전문가들이 영화에 대해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GT(Guest Talk)가 진행됐다. ‘춘몽’의 GT에 깜짝 진행자로 나선 홍보대사 김혜나를 필두로 ‘포고섬 이야기: 낮설고도 익숙한’의 캐서린 나이트 감독과 데이비드 크레이그 프로듀서, ‘드림 랜드’의 스티브 첸 감독, ‘달빛궁궐’의 김현주 감독, ‘내 사랑 한옥마을’의 김정인 감독을 비롯해 ‘니콜라스 그림쇼의 12가지 즐거움’을 직접 소개하기 위해 온 그림쇼의 서아시아 담당자 매튜 할로웨이 건축사 등 영화계뿐만 아니라 미술, 패션, 국내외 건축전문가들까지 대거 게스트로 참여한 GT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안겼다. 또한 ‘한국 건축의 확장과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HAF에서는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며 한국 건축의 오늘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다.

